

3월 마스크 대란 때 남구에 공급 “아무리 급박해도 이웃은 챙겨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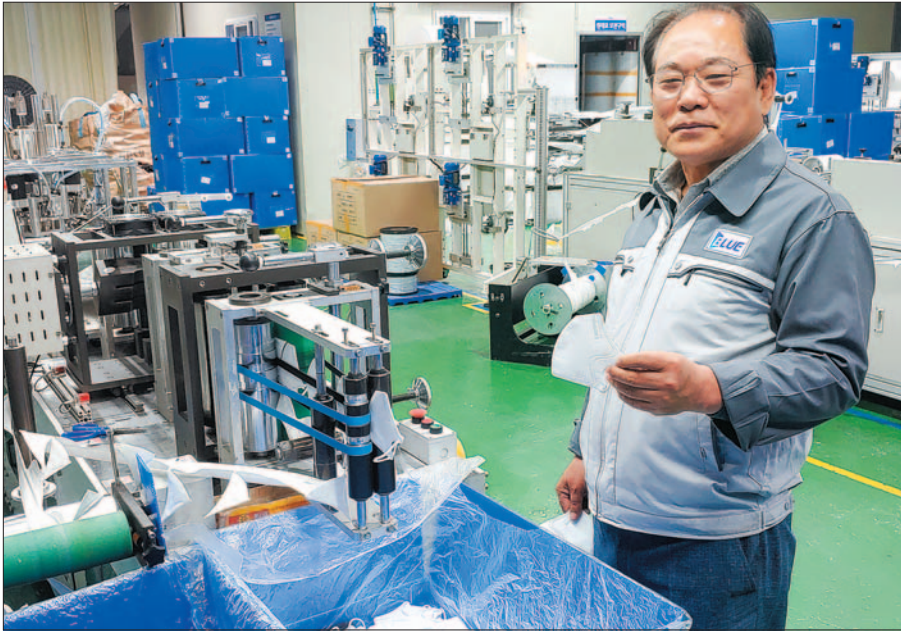
남구 마스크 수급 ‘숨은 공신’ 블루인더스 정천식 대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지만 근래 마스크 팔자만 할까 싶다.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가면서 마스크의 가치가 다소 퇴색했지만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월과 3월 마스크는 그야말로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금스크’였다. 이 긴박했던 시기, 남구는 KF94 마스크 10만 여장을 ‘비밀라’에 확보해 취약계층에게 나눠주었다. 당시는 전국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마스크 확보에 나섰지만 대부분 허탕을 치던 때였다. ‘용빼는 제주’가 있을 리 만무한데, 남구가 그 귀한 마스크를 어떻게 구했을까. 마스크 수급의 ‘숨은 공신’은 용호동 주민 정천식 씨 덕분이었다. 그는 경남 양산의 어곡지방산업공단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주)를 루인더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급박해도 제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절정이던을 초 사무실 앞에는 중국인 브로커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마스크를 싸들이 했다. 그 뒤 신종 감염병이 본격적

으로 국내를 덮치자 정부는 공적마스크 수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 물량 판매를 제한했다.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조달청 등 무려 4개 기관에서 직원들을 매일 공장으로 보내 마스크 생산과 판매를 감시하는 통에 업체도 물량을 손 대지 못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남구 주민들을 위해 적은 물량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마스크를 차곡차곡 확보해 남구에 인계했고 남구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우선 배부할 수 있다.

12년째 남구에 살고 있는 정 대표는 국가 정보기관에서 1급 관리관(차관보)까지 지낸 안전 분야의 베테랑이었다. 국가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을 만큼 잘 나가던 그는 하지만 2008년 자의 반 타의 반 오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10월 전공을 살려 산업안전용품 제조업체 ‘블루인더스’를 세웠다. 자신을 포함해 직원 4명으로 방진마스크, 도장, 용접복 등을 제작해 조선소에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 뒤 국내 조선 산업에



유례없는 위기가 찾아왔고 공장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다. 하지만 사업은 ‘운칠기삼’이라 했던가. 때마침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마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사회생하였고 급기야 아무도 예상 못한 코로나19로 마스크 사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직원 80명의 블루인더스는 관련 특허 등 30건이 넘는 마스크 관련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방역마스크를 하루 30만매 생산하고 있다.

정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 여겨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경상남도 고용우수 기업로도 인증 받았다.

정 대표의 기업관은 자신의 집무실 앞에 걸어 놓은 친필 휘호에 잘 드러나 있다. ‘泰山不辭土壤 江海不擇細流’(태산은 한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큰 바다는 개울물도 가리지 않는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리더의 도량과 관용에 관한 글귀다.

“공직 기간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정 대표는 “평생 월급을 받고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남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잘하는 것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사람 좋게 웃었다.

오륙도여성대학 제22기 수강생 모집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의식 제고로 건강한 가정과 다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오륙도여성대학을 운영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0. 6. 16.~6. 25.
- 매주 화·목 10:00~11:30
- 장 소 : 남구청 1층 대강당
- 수강인원 : 남구 거주 여성 50명
- ▷선착순 마감
-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운영기간 및 대상 축소
- 수 강 료 : 무료
- 수강신청 : 2020. 6. 2.(화)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남구청 주민복지과 ☎607-3350
- 강의일정
 - △6. 16.(화) 10:00~11:40
 - △6. 18.(목) 10:00~11:30
 - △6. 23.(화) 10:00~11:30
 - △6. 25.(목) 10:00~11:40



평화공원 내 ‘세계 평화의 숲’ 완공

목백합나무 등 757그루 식재

평화공원에 1만㎡ 규모의 ‘세계 평화의 숲’이 조성됐다. 대전초등학교와 남구장애인복지관 사이에 위치한 장미원과 허브원 자리

에 길이 200m, 폭 50m ‘세계 평화의 숲’ 조성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잔디밭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목백합나무 등 8종 757그루가 산책로를 따라 식재됐다. 높이 20m까지 성장하는 목백합나무는 가을에 노

란단풍이 물드는 게 특징이다.

세계 평화의 숲은 유엔기념공원의 준엄성과 상징성 유지하고 주변 완충 지역에 풍부한 수림대를 조성해 일대를 세계평화기원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숲 조성에 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비용 전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원한 기부금이 활용됐다. 공원녹지과 ☎607-4544

자부심 하나로 30년 버틴 ‘홍삼의 여왕’

힘내세요, 남구의 소상공인



대연동 ‘고선이 홍삼’의 고 선 이 대표

“남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골목상권에 훈기가 도는 게 느껴집니다.”

대연동 못골골목시장 부근에서 홍삼즙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고선이 홍삼’의 고선이 대표는 주력 상품인 홍삼즙이 면역에 도움이 돼 코로나19 사태에도 다행히 큰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다소 멋쩍어했다.

1990년 4월 20일 건강식품 가게를 열었으니 올해로 장사한 지 막 30년째다. 어린 아들에게 미숫가루를 지어주려 선식가게를 찾았다가 불결한 위생 상태에 말문이 막혀 그 길로 직접 선식가게를 차린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처음 대연교회 옆에서 장사를 하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2002년 지금의 위치로 옮겨 와 자신의 이름을 딴 가게를 다시 열었다.

장사가 잘 돼 한때 돈도 쓸쓸하게 벌었지만 홍소팡에서 건강식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낙담하지 않고 홍삼에 더 집중했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았다. “식재료가 같아도 주방장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듯, 홍삼은 달이는 기술에 따라 전혀 다른 약효가 나옵니다.”

고 대표는 6년근 인삼과 알칼리이온수로 85시간 동안 아홉번 찌고 말리기(구증구포)를 거듭해 홍삼원액을 얻는다. 입소문이 나면서 두 해 전에는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 직접 찾아와 “2억원을 투자할 테니 함께 사업을 키워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도 받았다. 고심 끝에 동업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기술전수를 통해 가게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꼭 부러지는 말투에서 짐작되듯 고 대표는 “오는 손님 막지 않고 가는 손님 잡지 않는다”는 대쪽같은 장사철학을 갖고 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 모친의 ‘임상실험’을 통해 홍삼즙의 효능을 검증했다는 그는 자부심 하나로 30년 세월을 버텼다고 당차게 말했다. 한편 고 대표의 홍삼즙을 매일 마신 모친은 올해 94세로 여전히 체력이 넘친다고 한다.

남구 코로나19 백신 만든다

‘기록 집대성’ 통해 유사 감염병 발생시 효율적 대응 목적

남구가 향후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대응백서를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정리해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대응체계 강화 및 분야별 전파를 통해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백서 제작에는 남구의 전 부서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가 참여해 코로나19 개요부터 발생 및 전파 현황, 남구의 각 분야별 대응현황,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미담사례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집대성한다. 백서는 6월초까지 자료 정리를 마친 뒤 6월말 책자 형태로 간행된다.

안전총괄과 ☎607-4646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이 사진은 실제 병원 전경입니다.



- ◆ 병원장 이재일(내과 전문의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학부)
 - ◆ 치매, 뇌졸중, 파킨슨, 노인성질환, 물리치료, 의학 한의학 협진
-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 355-14 |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 우측



상담문의 051-612-0075
www.grandnature.kr

유료광고